

여수, '여순사건 기념공원' 청사진 제시

도성마을 일원 추모공원 등 사업비 1,417억 투입 2024년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2026년 설계 목표

권오봉 여수시장이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여수시는 '울촌면 신흥리 도성마을' 일원에 총 부지 34만㎡의 '여순사건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2020년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후보지 9개 지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개발 용이성, 접근성, 연계성, 역사성 등 입지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했

다.

용역 결과 도성마을은 순천시와 인접하고 전남 동부권 피해지역을 비롯해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인근에 여수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등 원거리 방문객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한 노후 폐축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해 그동안 소외됐던 도성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화와 인권'이라는 여순사건의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념공원에는 연면적 6,000㎡, 1층 규모의 '여순사건 기념관'과 연면적 3,000㎡, 2층 규모의 '추모관'이 들어서게 된다.

아외에는 '추모공원'과 '추모마당', '추모의 길'을 조성해 유족은 물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권 시장은 경제파급 효과도 생산부분이 약 1,24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364억 원, 고용유발 효과가 약 647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417억 원 규모로 여수시는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해 기념공원 조성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기념공원 후보지 결정과 개발전략, 건립계획 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여수시는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2024년까지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26년 기념공원 설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순사건 기념공원은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넘어 미래의 후손들에게 인류 보편의 과제인 평화와 인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 될 것이다"며 "여순사건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순천, 생활지리정보 서비스 개시

전국 최초 지도기반 반응형 웹 구축

순천시가 24일부터 순천의 기본 지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은 기존 PC 기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해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GPS(위치정보조회) 기능을 추가해 현재위치 주변의 공중화장실, 민방위대 피시설, 무더위쉼터, 자동심장충격기 등 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지구도, 국·공유지 정보를 탑재해 공공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 박람회장 및 지역 내 개방정원에 대한 콘텐츠를 휴대하기 편한 전자지도로도

제공할 계획이며,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던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정보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지도기반 반응형 웹을 구축함에 따라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사항 등을 개선해 2월 중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개별행위 인허가 사항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공공감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곡성,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50만원 지원

총 30개소 선착순

곡성군이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제품 브랜딩을 위해 곡성군은 2020년부터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키워드 광고, 온라인 배너 광고, 소셜 마케팅, 오픈마켓 또는 중개 플랫폼 광고, 홍보용 이미지 디자인 및 촬영 등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올해는 총 30개소를 선착순 지원할 예정으로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증상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동일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각 읍·면 사무소와 곡성군 도시경제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제 온라인 마케팅에 사용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중개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익명의 기부천사 광양읍에 600만 원 기탁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 최근 익명의 기부천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600만 원의 성금을 지정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익명의 기부천사는 추운 겨울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5만 원 권 120장이 들어 있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그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이든 가보람 있는 일 하나 정도는 남겼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며 "주변에 알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어 "자신의 작은 지원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고 싶다"고 지속적인 후원의 뜻을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바로 자리를 떠났다.

기탁금은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상자 추천을 받아 추운 겨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광양읍사무소 지구급 총무과장은 "본인은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몸과 마음이 쉼 없이 일하는 선정을 알려준 훈훈한 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구례군이 저탄소 실천 행동 약속을 위한 카드 세레머니 퍼포먼스로 실현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구례군 제공

2050 탄소 ZERO 청정 '구례 비전' 선포

자연보전 등 6개 정책 발표

구례군이 지리산과 섬진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를 흡수하는 대한민국의 허파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23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군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최근 '2050 탄소 ZERO 청정 구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구례군은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기후전망 및 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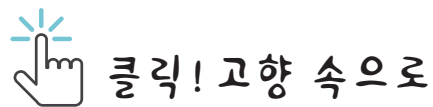
중립 정책 설명에 대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이어 저탄소 실천 행동 약속을 위한 카드 세레머니 퍼포먼스로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구례군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 청정구례 보전 ▲청정 모빌리티 구례 ▲청정 농축산 안심 구례 ▲청정 산림 녹색생명도시 구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비전을 선언했다. 또한 구례에 부존하는 지리산과 섬진강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정무구한 자원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깨끗한 공기를 발산하는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잘 보존해 탄소중립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및 기반 시설 구축, 저탄소 친환경 농·축산업 확대, 10만 그루 이상 나무 심기 및 도시숲 조성, 군민 1인 1톤 줄이기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광양 주부명예기자단, 후원금 전달

광양시 주부명예기자단이 최근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4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양시 주부명예기자단은 지역 미담 사례나 명소 등 다양한 주제로 기사를 작성해 기고하는 등 시민의 생생한 삶과 시정 주요 시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소통 매신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광양시 주부명예기자

단에서 '이웃사랑 행복 나눔 작은 바자회'를 열어 직접 만든 도시락을 판매하고 얻은 귀중한 수익금이다.

최경순 광양시 주부명예기자단 회장은 "짧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곡성4-H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연시총회

곡성군 4-H연합회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원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이·취임식 및 연시총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장성수 회장이 이임하고 김동찬 회장이 선임됐으며, 연시총회를 통해 올해 사업계획과 곡성군 4-H연합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찬 신임회장은 "올 한해 4-H회와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곡성군 4-H연합회는 지역 청년농업인 및 학생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H이념을 생활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이바지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보성교육지원청, '노사 소통의 날' 행사

보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가 최근 교육공무원 '노사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역점과제 및 특색교육에 대한 설명과 인사관리 운영, 근무현장에서 겪게 되는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보성지회장은 "노사가 함께 서로 소

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통해 노사가 발전적 관계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보성교육지원청 김선복 학교지원센터장은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서로 협력하는 노사관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